

스페인어 전치사의 문법화*

김 경 희 · 이 성 하

(한국외국어대학교)

Kyunghee Kim · Seongha Rhee, 2018. Grammaticalization of prepositions in Spanish. *Language and Linguistics* 81, 21-5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verall prepositional system of the Spanish language from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Drawing upon the historical developmental paths of some select items, it argues that the patterns of the development are generally consonant with the principles crosslinguistically validated in literature, such as desemantization, decategorialization, extension and erosion. It further argues that the development involves diverse mechanisms and characteristics such as reanalysis, layering, specialization, etc. It proposes a cycle of prepositions upon which prepositions are mapped by virtue of their formal characteristics and along which the overall prepositional system revolves. The analysis also notes that there is no privileged stage at which all newly arising forms enter the system. It is further argued that the grammaticalization of Spanish prepositions conforms to the crosslinguistic, typological and grammaticalizational patterns observed in other languages. Minor deviations notwithstanding, all these observations point to the hypotheses that adpositional concepts are among the human cognitive universals and that their developmental paths are among the shared cognitive processes that are operative in language use.

Keywords : Grammaticalization, Spanish, Prepositions, Simple prepositions, Complex prepositions

주 제 어: 문법화, 스페인어, 전치사, 단일전치사, 복합전치사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됨. 2017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언어연구소-담화인지언어학회 가을 공동학술대회에서 공동 발표한 주제를 심화한 것임.

1. 서론

권재일(2016: 56)에 따르면, 유럽어 문법기술에서 처음으로 전치사(preposition)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정의한 것은 Thrax가 2세기 경 그리스어에 대해 쓴 『문법론(Grammatiké Tékhne)』에서이다. 그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를 구분하였는데, 전치사는 문장구성과 통사구조에서 다른 단어 앞에 나타나는 단어이고, 부사는 굴절이 없고 동사를 수식하거나 동사에 첨가되는 단어이며, 접속사는 담화를 연결하고 문장의 순서를 부여하고 해석의 공백을 채워 주는 단어로 정의하였다. 불변화사에 대한 Thrax의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까지 유럽어 문법기술에 계승되어 왔고 스페인어¹⁾ 전통문법에도 반영되었다.

전치사는 형태론적으로 불변화사이자 자립어로 정의되지만 통사론적으로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후행하는 보어(complement)와 하나의 통사단위를 구성하는 기능어이다.²⁾ 스페인어를 비롯한 현대 유럽어에서도 전치사는 여전히 부사나 접속사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서 경계를 넘나드는 요소들이 관찰된다.³⁾ 스페인어의 예를 살펴보면, *hasta*가 (1a)에서는 도달점을 표시하는 명사구를 이끄는 전치사로 ‘~까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1b)에서는 상황보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앞에서 강조의 부사로 ‘~까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반면, *según*은 (2a)에서 ‘~에 따라’라는 의미로 명사구를 이끄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지만 (2b)에서는 ‘~나 대로’라는 접속사로 종속문을 이끌고 있다.

1) 스페인어는 로마의 이베리아 반도 지배(BC 218~AD 5세기) 이후 통속라틴어에서 분화된 카스티야(Castilla) 왕국의 언어인 카스테야노(castellano)가 이베리아 반도 통일(1492) 후 스페인어권 전역으로 확산된 언어이다.

2)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유형론에서는 전치사를 SVO 어순의 언어에서 주로 관찰되는 범주로 분류하고 SOV 어순의 언어에서 관찰되는 것은 후치사(postposition)로 분류한다. 전치사와 후치사를 포괄하는 범주를 부치사(adposition)라고 한다(Greenberg 1966[1963]). 한국어는 유형론적 특징상 후치사 체계를 갖고 있다.

3)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에도 아래 예의 *as*와 같이 전치사, 부사, 접속사는 동일한 단어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 a. He works as a professor.
- b. As always, he works hard.
- c. As you know, he's a good professor.

- (1) a. Te acompaño hasta la oficina.
사무실까지 너를 동행할게.
- b. La noticia sale hasta en los periódicos de hoy.
그 소식은 오늘 신문에까지 나온다.
- (2) a. Lo haré según las normas.
규정에 따라 그것을 할 겁니다.
- b. Lo haré según me diga usted.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스페인어는 라틴어에서 분화된 로망스제어에 속하는 언어로 라틴어의 전치사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전치사도 발전시켜온 언어이다. 국내에서 출판된 스페인어 문법책들에서는 전치사로 *a, con, de, en, por, para* 등과 같은 단일전치사만 전치사로 분류하고,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전치사로서 기능하는 *delante de, a pesar de, a causa de* 등과 같은 구조들은 전통 문법을 답습하여 ‘전치사적 관용구(prepositional idiomatic phrases)’로 다룬다. 하지만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⁴⁾의 ‘스페인어 새 문법(New Grammar of the Spanish Language, 2009)⁵⁾’에서조차도 이미 전치사적 관용구를 전치사의 하위범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명칭 면에서 단어가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되는 것처럼 전치사의 하위범주도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치사의 하위그룹을 지칭하고자 하며, 이들 하위범주에서 관찰되는 문법화 과정과 세부 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 2절에서는 스페인어 전치사의 명세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절에서는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 각각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본

4) 스페인 한림원은 1894년에 창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 해당한다. 스페인어의 표준화와 보급을 위해 중남미 각국의 한림원과 공동으로 문법책과 사전 등을 펴내는 곳이다.

5) 스페인 한림원과 중남미 각국 한림원이 연합하여 가장 최근에 출간한 문법책으로 3,885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법책으로 스페인어권 전체의 규범문법(normative grammar)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약자로(NGSL)로 명명한다.

후 다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제 4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범언어적 함의, 유형론적인 함의, 문법화 이론적 함의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제 5절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스페인어의 전치사

2.1. 전통문법

스페인어에서 전치사 범주는 그 구성 요소가 한정적이지만 학자들마다 서로 상이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확한 명세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페인어 첫 문법서인 Nebrija(1492: 207-208)⁶⁾에서는 속격과 함께 쓰이는 전치사로 *ante*, *delante*, *allende*, *aquende*, *baxo*, *debaxo*, *cerca*, *después*, *dentro*, *fuera*, *lexos*, *encima*, *hondón*, *derredor*, *tras*가 있으며, *baxo de la iglesia* ‘교회의 아래에’, *debaxo del cielo* ‘하늘 아래에’, *ante de media día* ‘정오 전에’, *delante del rei* ‘왕 앞에’, *allende de la mar* ‘바다 너머에’, *aquende de los montes* ‘산 쪽에’, *cerca de la ciudad* ‘도시 가까이에’, *después de medio día* ‘정오 후에’, *dentro de casa* ‘집 안에’, *fuera de la cámara* ‘거실 밖에’, *lexos de la ciudad* ‘도시에서 멀리’, *encima de la cabeça* ‘머리 위에’, *derredor de mí* ‘내 주변에’, *tras de tí* ‘네 뒤에’처럼 쓰이는데, 이들 중 *ante*, *delante*, *allende*, *aquende*는 대격과도 쓰일 수 있어서 *ante de juez* ‘재판관 앞에’, *delante el rei* ‘왕 앞에’, *allende la mar* ‘바다 건너’, *aquende los montes* ‘산 쪽에’처럼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격과만 쓰이는 것으로는 *a*, *contra*, *entre*, *por*, *según*, *hasta*, *hazia*, *de*, *sin*, *con*, *en*, *so*, *para*가 있으며, *a la plaça* ‘광장으로’, *contra los enemigos* ‘적을 대항하여’, *entre todos* ‘전체 중에’, *por la calle* ‘길을 통해’, *según san Lucas* ‘루카스 성인에 따르면’, *hasta la puerta* ‘문 앞까지’, *hazia la villa* ‘마을을 향해’, *de la casa* ‘집으로부터’, *sin dineros* ‘돈 없이’, *con alegría* ‘기꺼이’, *en la mula* ‘나귀 위에’, *so el portal* ‘현관

6) 여기서 인용하는 책은 1989년 Antonio Quilis가 재편집한 것이다.

아래에', *para mí* '나를 위해'처럼 쓰인다고 설명한다.

Nebrija 문법에서의 전치사의 유형을 용어를 바꿔 다시 정리하면, 대격과 쓰이는 것이 현대스페인어에서 단일전치사로 분류되는 유형들이고, 속격과 쓰이는 것들은 복합전치사의 유형으로 소유의 전치사 *de*가 후행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양 형태를 모두 취하는 유형은 경계에 있는 것들로 분류된다.

그런데 Nebrija의 이러한 분류는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였다. 스페인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Bello(1847: 697-703)⁷⁾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전치사로 *a, ante, bajo, con, contra, de, desde, en, entre, hacia, hasta, para, por, según, sin, sobre, tras*를 제시하고 그 외에 의고적인 전치사로 *so*를 명시한다. 또한 *afuera, adentro, arriba, abajo, adelante, atrás, antes, después*와 같은 부사는 전치사적인 특징을 띄면서 명사에 후행하는 것들이며⁸⁾, *mientras, pues, cuando, excepto, salvo, durante, mediante, obstante, embargante*는 전치사적으로 불완전하게 쓰이는 것들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Bello는 단일전치사만을 전치사로 인정하였고 전치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몇몇 부사와 접속사들을 언급하였다. 즉, 전치사의 범주는 부사와 접속사들과 연관이 있는 단일형으로 된 문법소들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Bello의 분류는 스페인어 전통문법의 기준이 되었고 오랜 세월동안 규범문법으로 다뤄졌다.

2.2. 현대문법

현대스페인어에서 복합형의 존재를 다시 살펴보게 된 계기는 Alarcos(1994) 부터이다. 그는 *a, ante, bajo, con, contra, de, desde, en, entre, hacia, hasta, para, por, sin, sobre, tras*를 전치사로 제시한다. 그는 *según*은 다른 전치사들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문장을 이끌

7) 여기서 인용하는 책은 1981년 Ramón Trujillo가 재편집한 것이다.

8) Bello(1847: 299)에서는 명사에 후행하는 부사의 예로 *cuesta arriba* '오르막으로', *rio abajo* '강 아래로', *tierra adentro* '내륙으로', *mar afuera* '먼 바다로', *meses antes* '몇 달 전에', *días después* '며칠 뒤에', *años atrás* '몇 년 뒤에', *camino adelante* '길로 나아가면서'를 제시한다.

수 있고 주격 대명사를 취하기 때문에 전치사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반면, ‘전치사적 관용구’는 전치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3)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유 또는 원인을 표시하기 위해 (3a)에서는 *por*가 쓰이고 있지만, (3b)에서는 *a causa de*도 동일한 의미와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3) 하찮은 일로 화냈다.

- a. Se enfadaron por una tontería.
- b. Se enfadaron a causa de una tontería.

(Alarcos 1994: 217)

Alarcos의 주장을 재정리하면, 단일전치사뿐만 아니라 전치사적 관용구, 즉 복합전치사도 복합형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치사로서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전치사 범주 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según*과 같은 요소는 전치사와는 다른 형태·통사적 특징을 보이므로 전치사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Alarcos의 주장은 앞서 언급한 한림원의 문법책(NGSL 2009: 2228-2276)에서 계승되어 규범문법화 되었다. 이 문법책에서 단일전치사로 분류한 것은 *a, ante, bajo, cabe, con, contra, de, desde, durante, en, entre, hacia, hasta, mediante, para, por, según, sin, so, sobre, tras, versus, vía*이고, ‘전치사적 관용구’도 전치사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전치사적 관용구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 통사구조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구성요소를 따로 분류하는 것도 까다로워 전치사 범주는 폐쇄범주이지만 개방범주적 양상도 보인다고 기술한다. 즉, 한림원은 복합전치사를 전치사적 관용구로 명명하기는 하면서도 전치사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Alarcos(1994)와 비교하면 한림원의 문법책(NGSL)은 단일전치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cabe, durante, mediante, según, so, versus, vía*를 인정하고 있고, 복합형도 전치사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전치사 범주를 더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교수하는 교수자들을 위한 문법책을 쓴 Romero와 González(2011: 208)의 경우에는 *a, ante, bajo, con, contra, de, desde, durante, en, entre, excepto/salvo, hacia, hasta, mediante,*

*por, para, según, sin, sobre, tras*를 전치사로 제시한다. 이 명세와 한림원의 문법책(NGLE 2009)의 차이는 전자는 *excepto/salvo*를 전치사로 인정하고 *cabe, so, versus, vía*를 인정하지 않지만, 후자는 정반대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전자는 스페인어를 교수하고 학습하는데 역점을 두어 현대스페인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요소들을 전치사로 다루는 실용적인 기준을 적용한 반면, 후자는 역사적이고 언어학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고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명세를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Romero와 González(2011)에서는 복합전치사의 경우 본 논문에서와 같이 복합전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장소’, ‘거리’, ‘시간’의 3가지 의미 영역으로 (4)와 같이 15개를 제시한다. 이는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러한 3가지 개념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a. 장소: delante de ‘~ 앞에’, detrás de ‘~ 뒤에’, debajo de ‘~ 아래에’, encima de ‘~ 위에’, dentro de ‘~ 안에’, fuera de ‘~ 바깥에’, al lado de ‘~ 옆에’, junto a ‘~ 곁에’, enfrente de ‘~ 맞은편에’, frente a ‘~ 정면에’, alrededor de ‘~ 주위에’
 b. 거리: cerca de ‘~ 근처에’, lejos de ‘~에서 멀리’
 c. 시간: antes de ‘~ 이전에’, después de ‘~ 이후에’

(Romero와 González 2011: 208)

놀라운 것은 (4)의 요소들은 이미 Nebrija(1492)가 500여 년 전에 속격 전치사로 제시했었던 것이다.

2.3. 스페인어의 전치사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스페인어 전치사의 단일형은 폐쇄 범주이지만 그 구체적인 명세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없다. 현대문법에서 공히 전치사로 인정되는 것은 16개로 사용빈도 순으로 나열하면 *de, en, a, por, con, para, sobre, entre, sin, desde, hasta, hacia, contra, ante, bajo, tras*이다⁹⁾.

9) 출현빈도 순은 구글 엔그램뷰어(Google Ngram Viewer, <https://books.google.com/ngrams>)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어 문헌을 1500년부터 2009년까지 디지털화하여 단어들의 출현빈도를 빅데이터 그래프로 보여준다. 예(4)에 제시된 복합전치사

하지만 *cabe, durante, excepto/salvo, mediante, según, so, versus, vía*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는 *durante, excepto/salvo, mediante, según, versus* 등은 현재분사, 접속사, 명사 등의 범주에서 전치사로 기능을 확대하여 그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cabe, so, vía*는 매우 제한적인 문맥에서만 사용됨으로써 전치사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소멸 과정 중에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전치사로 다루이지 않았지만 한림원의 '범스페인어 의문사전(*Pan-Hispanic Dictionary of Doubts*, 2005)'이나 '스페인어 정서법(*Orthography of Spanish Language*, 2010)'에서 전치사로 분류되는 *como*와 같은 요소도 있다. 한림원의 규범문법에서 전치사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가 동기판의 다른 출판물에서 전치사로 명명되는 것은 사전과 정서법에서는 문법범주에 대해 다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서 전치사의 범주로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요소도 전치사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김경희 2018a).

한편, 복합전치사의 경우 여러 단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전치사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전치사적 관용구'로 명명되어 왔으며 현대문법에서는 전치사의 하위범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명세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복합전치사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마지막에 항상 전치사를 포함하며,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비독립적 구조로 항상 후행하는 보어(complement)와 하나의 통사 단위를 구성하는 기능어라는 것이다(García-Page 2008: 129). 내부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휘소(N/Adj./Adv./V) + 전치사(P)" 혹은 "전치사(P) + (관사(D)) + 명사(N) + 전치사(P)"로 관찰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첫 번째 유형을 '어휘소(léxico)'의 첫 글자인 L을 빌어 LP로 지칭하고, 두 번째 유형을 P(D)NP로 지칭한다.

LP구조는 Nebrija(1492)에서 속격 전치사로 분류되고 Romero와 González(2011)도 주요 복합전치사로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구조이지만, 복합전치사로는 소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Cifuentes(2003)는 이 유형으로 127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시 어휘

들도 출현빈도순으로 나열하면 *dentro de, después de, antes de, frente a, fuera de, cerca de, junto a, alrededor de, encima de, lejos de, debajo de, detrás de, al lado de, delante de, enfrente de*가 된다.

소의 품사에 따라 세분되어 (5a)에서는 명사가 관찰되고, (5b)에서는 형용사, (5c)에서는 부사, (5d)에서는 동사가 관찰된다.

- (5) a. camino a, caso de, cuestión de, gracias a, respecto a ...
- b. acorde con, conforme a, debido a, distante de, junto a ...
- c. atentamente a, conscientemente de, gratamente a ...
- d. pese a ...

복합전치사의 대다수의 유형인 P(D)NP로는 Ueda(1990)가 428개, Koike(1997)는 425개, Cifuentes(2003)은 459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핵어의 유형과 관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6)에서처럼 세분될 수 있다. (6a)에서는 단수명사가 사용되고 있고, (6b)에서는 복수명사가 사용되며, (6c)에서는 정관사가 사용된다.¹⁰⁾

- (6) a. a base de, con destino a, de cara a, en beneficio de ...
- b. a orillas de, de espaldas a, con miras a, en brazos de ...
- c. a la sombra de, con el fin de, en la medida de ...

그런데, 이러한 복합전치사의 명세에는 전치사가 연이어 두 개 출현하는 이중전치사 혹은 중복전치사 구조가 빠져있다. 이는 이들 전치사가 하나의 단위로 응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abezas(2015)는 이러한 구조에 주로 쓰이는 전치사는 공간 전치사로 (7)에서와 같이 공간에서의 위치와 방향을 더 세밀하게 표시하기 위해 이중적으로 전치사가 쓰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 (7) a. Lo sacó de entre la basura.
 그것을 쓰레기 사이에서 꺼냈다.
- b. Lo quitó de sobre la mesa.
 그것을 탁자 위로부터 치웠다.

(Cabezas 2015, 13)

10) a *juzgar de*, a *partir de*, a *pesar de* 등 핵어가 동사원형이 사용되는 경우는 스페인어에서 동사원형이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6a)의 하위범주로 분류된다. 특별히 Torres와 Volker(2011: 229)는 a *pesar de*의 단위성(unithood), 빈도(frequency),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의 시기별 차이를 분석해 그 문법화 과정을 설명한다.

Slager(2010)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para con*의 경우에는 *para*를 생략해서 사용하는 구조와 의미적 차이가 없다고 분석한다. (8)의 양 예문 모두에서 *para*가 생략 가능하다.

- (8) a. No eran particularmente crueles (para) con sus enemigos.
그의 적들에 대해서 특별히 잔인하지는 않았다.
b. Es un detalle que tuvo (para) conmigo.
내게 대한 작은 성의였다.

(Slager 2010: 114)

요약하면, 스페인어 전치사 범주는 계속 변화과정 중에 있는 유동적 범주이다. 단일전치사의 명세도 복합전치사의 명세도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이중적으로 전치사가 연속해서 쓰이는 것은 응집력이 약하여 전치사의 하위범주로 다루지 않는다.

3. 전치사의 유형과 문법화

3.1. 단일전치사의 문법화

단일전치사의 명세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한림원 문법책(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23개의 전치사 *a, ante, bajo, cabe, con, contra, de, desde, durante, en, entre, hacia, hasta, mediante, para, por, según, sin, so, sobre, tras, versus, vía*를 중심으로 문법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림원의 문법이 규범문법이기도 하지만, 전치사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려해서 가장 많은 전치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는 용어는 Meillet(1912)가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처음 사용하였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Kuryłowicz(1965: 52)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 것

이다. 이후 Givón(1979), Heine와 Reh(1984), Lehmann(1982), Heine 외(1991), Bybee외(1994), Traugott(1996), Hopper와 Traugott(2003 [1993])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으로 정립되고 문법화의 세부과정들이 논의되었는데, Heine와 Kuteva(2002)는 ‘의미소실(desemanticization)’,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형태소실(erosion)’, ‘기능확대(extension)’라는 네 가지 세부 원리를 제시하였다(기타 중요한 원리에 대한 설명은 이성하(2016: 169-229) 참조).

Heine와 Kuteva(2002)의 정의에 따르면, 의미소실은 구체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변해가는 과정이며, 탈범주화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어휘범주가 그 일차 범주적 특징인 굴절이나 일치 등의 특징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다. 형태소실은 형태통사적 독립 단위로서의 특징을 상실하고 축약 등의 과정을 통해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며, 기능확대는 특정 문맥에서 쓰이던 요소가 다른 문맥에서도 사용되어 가면서 사용 문맥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세부 원리들은 독립적으로 관찰되기도 하지만 서로 뒤엉켜 관찰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스페인어 전치사에서 관찰되는 의미소실과 탈범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9)처럼 라틴어에서 타 범주에 속했던 것이 일차범주의 형태통사적인 특징과 의미를 소실하고 스페인어에서 전치사로 바뀐 경우와 (10)처럼 스페인어 내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들이 관찰된다.

- (9) a. bassus(라틴 형용사) ‘작은’ > baxo > bajo(서어 전치사) ‘~의 아래에’
 b. via(라틴 명사) ‘길’ > (서어 전치사) ‘~을 경유해서’
 c. contra(라틴 부사, 전치사) ‘반대로’ > (서어 전치사) ‘~을 반대하여’

- (10) a. durante(서어 현재분사) ‘지속하면서’ > (서어 전치사) ‘~하는 동안’
 b. mediante(서어 현재분사) ‘중재하면서’ > (서어 전치사) ‘~을 통해서’

(Corominas 1981, Portilla 2011)

형태소실의 과정을 거친 전치사의 예들은 (11)에서 관찰되는 것들인데,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이다가 형태마저도 하나로 축약되어 융합된 것들이다. (11)에서 *desde*, *hacia*, *para*는 라틴어에서는 여러 요소의 결합형이었던 것이 스페인어에서 단일단위로 진행된 예이며, *cabe*는 스페

언어에서 결합형으로 시작하여 단일단위로 진행된 것이다.

- (11) a. (라틴어) de + ex > des >> + de > desde
 b. (라틴어) facie + ad > fazia > hazia > hacia
 c. (라틴어) pro + ad > pora > para
 d. (서어) a cabo de > cabe

(Corominas 1981, Portilla 2011)

기능확대는 모든 전치사에 다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영역에서 사용되던 전치사가 시간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은유를 통한 의미 확장의 일환이며 이러한 현상은 더 보편적인 현상인 유추(analogy)와도 관련이 있다. 공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그리고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의 확장되는 순서는 Heine 외(1991: 55)에서 위계로 설명한 것으로 '공간 > 시간 > 질'의 위계가 있어서 역순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2)의 *entre*를 살펴보면, 공간표지, 시간표지, 추상관계 표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12) a. Corea está entre China y Japón.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b. Nos vemos entre las cinco y las seis.
 우리 5시에서 6시 사이에 만나자.
 c. Ella está entre la vida y la muerte.
 그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다.

특별히, 스페인어는 라틴어에 기원한 언어이기 때문에 (13)에서 관찰되듯이 라틴어 전치사에서 계승된 전치사가 많으며 형태상으로 동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라틴어의 전치사가 대략 40여 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⁶⁾ 스페인어 분화 과정에서 계승된 것보다 소멸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계승된 전치

6) 한동일(2014, 292-298)에 따르면, 라틴어에서 대격을 취하는 전치사는 *ad, adversus/ adversum, ante, apud, circa/circiter/circum, cis/citra, erga, extra, infra, inter, intra, iuxta, ob, penes, per, post, praeter, prope, propter, secundum, supra, trans, ultra*이고 탈격을 취하는 전치사는 *a/ab/abs, absque, cum, coram, de, e/ex, prae, pro, sine, tenus*이며, 대격과 탈격을 모두 취하는 전치사는 *in, sub, super*이다. 또한 *ante, secundum, super* 등은 부사의 기능도 겸하였다.

사의 경우에도 라틴어에서와 동일한 기능만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 없고, 기능 중의 일부는 소실되고 변형되고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ad > <u>a</u>	ante > <u>ante</u>	cum > <u>con</u>
de > <u>de</u>	in > <u>en</u>	inter > <u>entre</u>
pro > <u>por</u>	sine > <u>sin</u>	secundum > <u>según</u>
sub > <u>so</u>	super > <u>sobre</u>	trans > <u>tras</u>

(Corominas 1981, Portilla 2011)

그 밖에 라틴어 외의 언어에서 스페인어 전치사로 ‘차용(borrowing)’된 것으로 *hasta*와 *versus*가 있다. (14)의 *hasta*는 아랍어에서 차용된 유일한 전치사인데, 이는 로마인들과는 달리 아랍인들이 스페인을 약 800년간(711~1492) 지배하면서도 아랍어의 사용을 스페인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의 *versus*는 원래 라틴어 어휘가 영어로 차용되어 전치사로 쓰이다가 다시 스페인어로 차용된 이른바 ‘간접차용’의 예이다.

(14) háttà (아랍어 전치사) ‘~까지’	adta, ata, fasta, fata > <u>hasta</u> (서어 전치사) ‘~까지’
(15) <u>versus</u> (라틴 부사) ‘향해서’	(영어 전치사) ‘~에 대항해서’ (서어 전치사) ‘~에 대항해서’

(Corominas 1981, Portilla 2011)

요약하면, 스페인어의 단일전치사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도 있고 스페인어에서 새로운 생성된 것도 있고 아랍어나 영어에서 차용된 것도 있으며 의미소실, 탈범주화, 형태소실, 기능확대라는 다양한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온 것들이다.

3.2. 복합전치사의 문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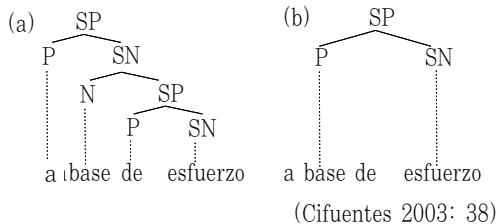
Codita(2016: 219-225)는 중세 스페인어에서 관찰되는 복합전치사의 목록을 572개 제시하고 있는데⁷⁾, 이는 Cifuentes(2003)가 현대어에서 제시하

7) Codita(2016: 118)가 중세 복합전치사 중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제시한 복합전치사 30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después de, ante(s) de, por razón de, (a)cerca de,*

고 있는 586개와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Codita(2016: 56-57)에 따르면, 이렇게 복합전치사가 많이 관찰되는 것은 로망스어의 특징이다. 라틴어에는 격변화(declension)와 40여 개의 전치사가 있었지만, 로망스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격변화가 없어지고 전치사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라틴어에서 표현하였던 세밀한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합전치사가 발달하게 되었다. 동저자가 제시하는 근거는 번역서에서 라틴어 전치사가 스페인어에서 전치사적 관용구로 많이 번역되어, 라틴어의 *pro*는 스페인어에서 *por razón de*나 *en lugar de*로 번역되고, *ab*는 *a/de (la) parte de*로 번역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전치사의 문법화는 근원적으로 재분석(reanalysis)에 의한 것이다. 이는 특정 구조가 외형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음에도 화자가 그것의 범주나 의미를 다르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Langacker 1977: 58). 예를 들어, Cifuentes(2003)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도식 1]의 *a base de*의 경우 (a)에서는 'P', 'N', 'P'가 별개의 범주로 분석되어 더 큰 통사범주의 구성소로 각각 분석이 되지만, (b)에서는 PNP가 하나의 응집된 단일단위 P로 재분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분석에 의한 변화는 구조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으나 표면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것이 재분석된 언어형태의 문법범주적 지위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도식 1] 재분석



por mandado de, fueras ende, fuera(s) de, mas de, so pena de, en tiempo de, dentro/en/a, de parte de, en poder de, en lugar de, demás de, a(l)/en cabo de, a menos de, en razón de, (en) cuanto a/de/en, en pos de, a/en pro de, por amor de, a/en semejança de, por honra de, por virtud de, en nombre de, en mano de, en medio de, por anno de, delante de.

이렇게 복합전치사와 일반적 통사구를 구분하는 데는 앞서 언급한 의미소실과 탈범주화 원리에 기초한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의미적으로는 핵이 되는 어휘소의 의미가 탈색되는 것이다. (16a)에서 *lugar*는 ‘위치’ 또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16b)에서는 더 이상 장소적인 의미는 없으며 *en lugar de*가 결합된 한 단위로 ‘~대신에’라는 의미를 띤다. 탈범주화 측면에서는 핵이 되는 어휘소가 성수 변화를 할 수 없으며, 출현하는 전치사가 다른 전치사로 교체되거나 생략될 수 없고 다른 요소들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명사라는 문법범주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정관사를 동반하는 현상도 점차 사라진다. 따라서 (16b)에서 명사 *lugar*는 성수 변화할 수 없으며, 전치사 *en*과 *de*도 다른 전치사로 교체될 수 없고 세 요소 모두 생략될 수 없다(Koike 1997: 153).

- (16) a. Ponte en el lugar de Jordi.
 Jordi의 위치에 서.
 b. Hagamos ejercicio en lugar de ir a tomar helado.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대신 운동하자.

의미소실과 관련된 또 다른 문법화 현상은 Hopper(1991)가 분석한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다. 이는 문법화된 요소라 할지라도 오래도록 기원어의 의미를 유지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복합전치사의 경우에 단일전치사보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17)의 복합전치사 *a falta de* ‘~의 부족으로’는 Codita(2016)가 제시한 중세스페인어 복합전치사의 목록에도 있는 것인데 현대스페인어에서도 *falta* ‘부족’의 의미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 (17) Ese plan económico no sirve para nada a falta de dinero.
 그 경제계획은 자금부족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형태소실은 P(D)NP구조에서 형태적 축약과정을 겪어 현대어에서 LP구조를 보이는 복합전치사에서 관찰이 되는데, 특히 앞에서 언급된 정관사의 소실뿐만 아니라 단어들 간의 경계가 소실되어 이전에 독립된 단어였던 구성소들이 새로운 문법형태의 형태소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며, 대부분의 형태소 중심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소화(morphologization)가 문법화와 동일시되기도

한다(이성하 2016: 304). (18)이 그러한 형태소실의 예들이다.

- | | |
|-------------------------------|-----------------------------|
| (18) debajo de(⟨ de bajo de), | detrás de(⟨ de trás de) |
| dentro de(⟨ de intro de), | después de(⟨ de pues de) |
| encima de(⟨ en cima de), | enfrente de(⟨ en frente de) |

가능확대도 많은 복합전치사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은유와 유추가 동인이 된다. 예를 들어, 복합전치사 *al final de* ‘~의 끝에, 막바지에’의 경우에는 (19a)에서는 ‘길의 막바지’라는 공간적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19b)에서는 ‘오후의 막바지’라는 시간적 의미로 쓰이고, (19c)에서는 ‘노력의 막바지’라는 추상적인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

- (19) a. Estamos al final del camino.
우리는 길의 막바지에 있다.
- b. Estamos al final de la tarde.
우리는 오후의 막바지에 있다.
- c. Estamos al final de nuestros esfuerzos.
우리는 노력의 막바지에 있다.

(Codita 2016: 53)

Klégr(1997)는 P(D)NP구조로 구성된 영어의 복합전치사 473개를 핵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첨가나 배제’, ‘일치’, ‘이득’, ‘원인이나 이유’, ‘양보’, ‘조건’, ‘연결’, ‘정도’, ‘손실’, ‘불일치나 대조 혹은 비교’, ‘안내’, ‘확인’, ‘방법’, ‘수단이나 행위자’, ‘기원’, ‘참여나 협력’, ‘장소’, ‘소유’, ‘목적이나 목표’, ‘등급’, ‘대체’, ‘존중이나 무시’, ‘주제’, ‘지원’, ‘시간’이라는 25개의 세부 의미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복합전치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는 앞서 제시한 ‘장소’, ‘거리’, ‘시간’의 기본적인 개념영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광범위하고 세분된 정밀한 개념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들의 인지적 필요성에 의해 일반 통사구조가 복합전치사로 문법화한 것으로 보인다.⁸⁾ 이와 관련하여 Rohdenburg(1996)는 복잡한 개념은 복잡한 구조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

8) 특별히 Heine 외(1991)에서 제시한 은유의 존재론적 연속성을 보면 시간 후에 ‘질(quality)’이 끝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질’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차원에 적용될 수 있어 인지적인 개념영역 내의 해당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음을 주장하였다.

복합전치사의 핵이 되는 명사의 원래 의미를 기준으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20)과 같이 신체 명사가 위치를 표시하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와 (21)과 같이 시각 명사가 목적이나 목표 표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22)와 같이 척도나 비율 명사가 근거 표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등이 관찰된다. (20)과 (21)에서는 은유를 통해 신체개념이 공간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22)에서는 환유를 통해 부분이 전체로 사상되어 척도나 비율이 근거표지로 쓰이고 있다.

(20) a. corazón ‘심장’ > en el corazón de ‘~ 중심에’

b. frente ‘이마’ > al frente de ‘~ 정면에’

c. pie ‘발’ > al pie de ‘~ 밑에’

(21) a. vista ‘시각’ > con vistas a ‘~ 목적으로’, ‘~ 목표로’

b. mira ‘시선’ > con miras a ‘~ 목적으로’, ‘~ 목표로’

(22) a. medida ‘척도’ > a la medida de ‘~을 따라서’

b. proporción ‘비율’ > en proporción con ‘~에 비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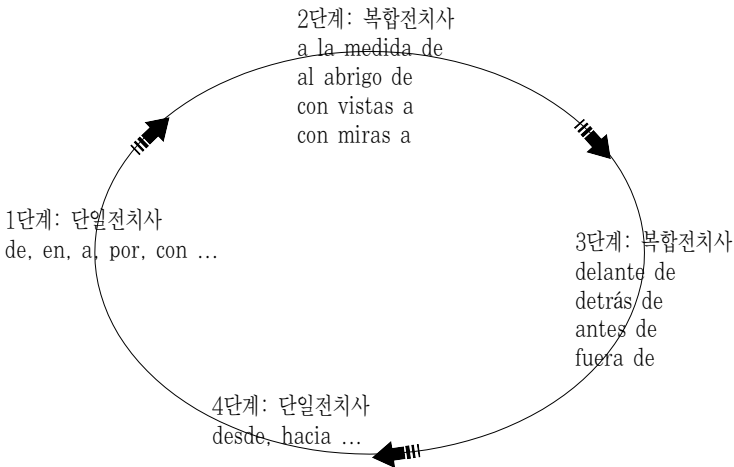
요약하면, 복합전치사의 문법화 과정에서는 단일전치사에서처럼 탈범주화와 형태소실이 관찰되었고 은유와 환유, 유추를 통한 기능확대도 관찰되었다. 또한, 단일전치사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재분석과 의미지속성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3.4.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의 상관관계

현대 스페인어에서 단일전치사는 개념의 정교화와 동일 표현 회피 경향 등의 이유로 복합전치사와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복합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복합형이 형태소실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단일전치사화 되는 순환(circle)을 보인다. 단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제 1단계에서는 더 작은 형태소로 분리 불가능하며, 기능확대도 최고조에 도달한 단일전치사들이 관찰이 된다. 제 2단계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구조가 재분석을 통해 복합전치사로 발전한다. 이 경우 다른

복합전치사의 유형과 비슷한 유형에서 유추된 형태가 생성되며, 핵범주의 의미 지속성과 탈범주화가 관찰된다. 제 3단계에서는 형태소실이 관찰이 되며 핵범주의 의미소실과 탈범주화가 완성된다. 제 4단계에서는 형태소실이 완성되어 단일형이 되었음에도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며, 기능확대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의미가 아직 단순한 단일전치사가 관찰된다. 이러한 과정은 [도식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도식 2] 전치사의 순환



[도식2]의 순환고리는 스페인어의 첫 기록인 ‘엘 시드의 노래(*El Cantar de mio Cid*, 1140년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로 약 1,000년의 변화 양상이다. 그러나 어떤 단계도 안정화된 단계라고 할 수 없으며, 각 단계별로 언어 내적 혹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욱 비활성화되어 사멸의 단계로 접어드는 형태들이 있다.⁹⁾ 예를 들어, *so*는 1 단계에서 이미 소멸된 형태이고 *a cabo de*는 2단계에서 소멸된 형태이며, *cabe*는 4단계에서 소멸된 형태이다.

9) 이런 점에서 언어의 어느 시점에서든 완성된 문법은 존재하지 않고 문법화도 완성된 단계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른바 ‘만들어지고 있는 문법(emergent grammar)’(Hopper 1987)의 개념은 문법현상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유추를 통해 유입되는 전치사들도 있어서 순환의 시작점이 1단계 단일전치사가 아니다. 2단계 P(D)NP 유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중세에는 복합전치사로 쓰이지 않았지만 현대어에서 관찰되는 *con emisión de* ‘~의 분출로’, *en convergencia con* ‘~와 수렴하여’ 등이 그 예들이다¹⁰⁾. 특히 2단계 전치사들의 경우에는 그 대략적인 기능이 1단계 전치사들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재건(renewal)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언어가 지속적인 단순화 과정만 거치지 않고 복잡화 과정도 되풀이되어 언어의 전반적인 복잡성 정도가 유지된다는 지적과 잘 부합한다(이성하 2016[1998]: 152-153)¹¹⁾. 3단계 LP구조에서는 2단계 문법형태들이 형태적 소실 등을 통해 형태소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mente*형 부사와 전치사의 결합형인 *apegadamente a* ‘~에 밀착하여’, *inversamente a* ‘~에 역으로’ 등이 현대어에 많이 쓰이는 예로 볼 수 있다¹²⁾. 4단계에서는 형태적 소실이나 융합이 더 진전되어 형태적으로 단일형태소의 모습을 가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이전 단계에서 점진적인 발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부터 문법형태소를 직접 차용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언어내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언어형태를 기능적 전이를 통해 기능을 변화시킨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단일전치사 형태로 *versus*가 차용을 통해 영어로부터 현대 스페인어에 유입되었고 *como*는 *quomodo*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페인어에서 주로 ‘~대로’와 ‘~해서’의 의미를 띠는 방법의 관계부사나 이유의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로서’라는 자격 전치사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김경희 2018a).

한편, 유사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고 해서 유사한 발전단계와 문법화 과정

10)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스페인어 첫 기록에서 1974년 이전까지의 용례들을 검색할 수 있는 통시말뭉치(Corpus Diacrónico del Español, <http://corpus.rae.es/cordenet.html>)를 제공하는데, *con emisión de*의 첫 기록은 1927년, *en convergencia con*은 1917~1933년으로 추정되는 기록이다.

11) 물론 언어가 생겨나던 진화 초기단계의 언어는 현대 언어에 비해 복잡성 정도가 낮았을 것은 자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대략적인 복잡성 유지란 언어로 잘 정착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진화 및 언어발달적 관점에서의 복잡성 증가에 대하여는 Tomasello(1999), Givón(200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2) 한림원의 통시말뭉치에 *apegadamente a*는 없으며 *inversamente a*는 1927년이 첫 기록이다.

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김경희(2018b)에서는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의 상관관계의 한 예로 기원적 의미가 얼굴을 향하는 방향인 *hacia*와 *de cara a*를 대조분석한다. *hacia*는 복합형 *facie ad*에서 시작하여 단일형으로 형태적 문법화는 거의 완성단계이다. 반면, *de cara a*는 아직 형태소실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복합형이고 오히려 *cara a*에서 *de cara a*로 형태가 증가한 형태로 상기의 순환방향에 역행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음축약으로 *cara*로 발음되는 경우 명사형과 구분이 어려워 구별되는 형태를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미 *de cara* ‘얼굴 쪽으로’라는 관용구도 있어서 PNP 구조인 *de cara a*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김경희 2018b).

또한, 단일전치사나 복합전치사의 문법화 과정을 각각 살펴보았을 때는 관찰되지 않았던 ‘층위화(layering)’와 ‘전문화(specialization)’(Hopper 1991)가 *hacia*와 *de cara a*의 대조분석에서 관찰되었다(김경희 2018b). 층위화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 형태가 있음에도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여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초기스페인어에서 *hacia*와 *cara a*가 ‘~를 향하여’라는 동일한 의미로 층위화 현상을 보였다. 전문화란 각각의 요소들이 자신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일 일컫는데, 스페인어 변천과정에서 *hacia*는 (23)처럼 시공간 상의 대략적인 방향, 경향이나 감정 및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전문화되고 *cara a*는 *de cara a*와 함께 (24)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 목적이나 의도, 관계 등을 표현하게 되었다.

(23) La admiración hacia ella le hizo aguantar la situación.

그녀에 대한 감탄으로 상황을 견뎠다.

(24) Los preparativos (de) cara a la elección requieren mucho tiempo.

선거를 대비한 준비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요약하면,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의 상관관계에서 관찰되는 문법화의 세부 과정은 하위범주별로는 관찰되지 않았던 순환, 층위화, 전문화 등이다.

4. 이론적 시사점

4.1.

스페인어의 단일/복합전치사가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은 근접, 부재, 수반, 비교, 도구, 원인, 유사, 전후상하 등으로 다른 언어들과 유사하다. 이는 인간의 언어사용 활동에 있어 문법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제한된 집합에 속함을 나타낸다. 문법적 개념들이 제한적 집합을 이룬다는 것은, 사물과 사물의 상호적 관계나,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대상물이 사건이나 상황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한 언어사용자들의 개념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두 사물이나 사건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 조건관계, 수해관계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간 인지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이들은 비록 문법 범주 상으로는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히 전치사나 후치사는 명사 논항이 명제에 대해 가지는 의미기능을 표시하는 문법범주이므로 이러한 보편적 개념이 문법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문법개념을 표시하는 단일전치사와 복합전치사의 존재는 창의성, 현저성, 개념적 복잡성 등을 언어적으로 표상하려는 욕구에 따른 보편적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욕구는 해당 문법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법소를 만들어내는 재건 현상으로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 근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는 단일형태는 *según* 이외에도 복합형인 *conforme a*, *de acuerdo con*, *con arreglo a* 등이 있다. 언어사용의 원리가 단순히 경제성이라면 이러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표지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Rohdenburg(1996)는 언어사용 맥락이 개념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문법형태도 복잡한 형태가 사용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즉흥적 담화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강연이나 토론 등과 같이 개념적으로 복잡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Heine와 Stolz(2008)에서는 언어사용자는 자신이 진부해진 표현만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시하는 창조성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스페인어가 가지는 언어개별성도 관찰된다. 특히 언어계통적인 이유로 라틴어에서 차용된 전치사들이 다수 있으며, 언어접촉의 이유로 아랍어 등에서 유래한 전치사도 존재한다. 또한 인접어이면서도 계통적으로 자매관계에 있는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와의 상관성도 세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 다른 언어개별성의 예로는 1차 전치사라 할 수 있는 단일전치사들이 기타 유럽어, 특히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전치사 항목의 전문화(specialization: Hopper 1991)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타한 이유가 있는지도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4.2. 유형론적 함의

스페인어는 굴절어로서 명사는 성, 수에 따라 굴절하고, 동사는 법, 시제, 인칭, 수에 따라 굴절한다. 그러나 단일/복합전치사의 발달과정에서는 굴절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문장의 핵심요소로서보다는 부가요소로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부가요소가 문장 내에서 가지는 기능은 대개 대상을 상호관계나 상황 속에서의 위치 등을 추가로 표시하거나(예: 방향, 위치, 유무 등), 기타 개념적으로 복잡한 상호관계를 표시하는 것(예: 양보, 조건, 불일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가요소의 접속 방식은 복합전치사의 경우, 주로 연결장치라 할 수 있는 전치사가 포함되는 P(D)NP구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로망스 제어와 같이 동일한 언어유형에 속한 다른 언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형태통사적 구조이다. 또한 단일전치사가 접두사, 부사 또는 접속사와 동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은 영어와 같은 기타 언어에서도 관찰되는 공통현상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특징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점도 발견된다. 특히 부가요소의 접속 방식 중 [N+P]의 경우는 형태통사적 구조상 특이한 예이다(예: *gracias a, frente a, rumbo a, respecto a, merced a, camino de...*). 이는 명사는 그 범주의 특성 상, 합성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명사와 직접 접속하기에 어려우며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접속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사의 경우에는 접속기능을 갖고는 있으나 뒤에 전치사를 동반하는 구조를 띠는 점에서 형태통사적으로 특이성을 보인다(예: *lejos de, fuera da, cerca de...*). 또한 동사는 대개 분사형을

로 발달하여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스페인어의 경우는 매우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예: *durante*, *mediante*). 덧붙여, Elvira(2009)에 따르면 *pese a*는 라틴어의 *pensare* ‘생각하다’에서 의미가 탈색되어 현대스페인어에서 *pesar* ‘마음 아프게 하다’로 쓰이는 동사가 종속절에서 접속법 현재의 형태로 *aunque pese a todo* ‘모두가 마음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쓰이다가 *pese a*만 ‘~에도 불구하고’라는 복합 전치사화 된 것이다. 이는 동사의 접속법 형태와 전치사가 결합하여 복합전치사가 된 매우 특이한 경우로 *a pesar de*라는 PNP 구조와 병존하고 있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4.3. 문법화 이론적 함의

어원적 어휘소의 특징의 면에서 보면,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신체명사 > 위치 표시 전치사] 등과 같은 경로들이 다수 관찰된다. 그 외에도 [시각명사 > 목적/목표 표시 전치사], [척도, 비율 > 근거 표시 전치사] 등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이 관찰된다.

또한 문법화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예시와 더불어 분석한 바와 같이 Heine와 Kuteva(2002)에서 제시된 4 가지의 문법화 원리, 즉 ‘의미소실’(desemanticization),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형태소실’(erosion), ‘기능확대’(extension)의 모든 원리가 스페인어의 전치사 발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즉, 의미소실의 경우, 구체적인 의미요소가 탈색되어 추상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추상화 과정으로서의 의미소실이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문법개념이 어휘개념과 대조적으로 통상 추상적 관계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얼굴’을 가리키는 명사 *faze*가 전치사 *a*와 결합하여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hacia*로 발달된 경우는 신체부위를 지칭하던 의미요소가 소실되고, 얼굴이 인체의 이동 방향인 앞을 향하고 있다는 인체모형(anthropomorphic model, Heine 1997)에 따라 방향을 나타내는 문법표지로 추상화된 의미소실의 좋은 예가 된다. 또한 탈범주화의 원리에서 보면, 전치사로 발달한 일차 범주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의 경우, 굴절, 수표지, 성표지와 같은 1차 범주적 성격을 잃어버려 형태통사적으로 불구형이 된다. 문법요

소의 발달에 참여하는 일차범주어의 형태통사적 특징의 소실은 일반적인 원리로서 탈범주화 원리로 설명되는데, 예를 들어 ‘~덕분에’를 뜻하는 *gracias a*가 **gracia a*와 같은 변이형을 허용하지 않고, *merced a*가 **mercedes a*를 허용하지 않으며 *a favor de*가 **a un favor de*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예에서와 같이 단복수 변형, 관사삽입과 같은 전형적인 명사 범주의 특징을 소실한 것을 볼 수 있다. 형태소실의 면에서 보면, 단일/복합전치사의 발달에 있어서 통합관계에 나타나는 형태적 소실은 빈번하게 관찰된다. 고빈도 노출에 따른 형태통사적 축약과 소실 또한 문법화의 보편적인 원리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encima de*가 *en cima de*에서 발달하고, *detrás de*가 *de trás de*에서, *debajo de*가 *de bajo de*에서, *después de*가 *de pues de*에서 발달한 것 등은 형태통사적으로 단어의 경계가 소실된 형태적 소실의 분명한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능 확대의 면에서 보면, 전치사로 문법화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문법기능의 종류가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문법요소의 기능확대도 문법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 사이에’의 뜻을 가진 전치사 *entre*는 떨어져 있는 두 사물의 간격을 가리키는 공간지칭어로 출발하여 ‘~중간에’, ‘서로’, ‘~ 중에’, ‘~ 안에’ 등 다양한 공간 및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표지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초기의 문법기능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첨가되어 실제로 해당표지가 담당하는 개념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당 개념영역의 확대는 자연히 이 문법표지가 사용될 수 있는 문맥이 확대되어 더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빈도 상승은 개념의 일반화를 더욱 촉진하고 이는 빈도를 다시 상승시키는 상호촉진 관계가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전치사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 명세를 제한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단일전치사로는 *a*, *ante*, *bajo*, *con*, *contra*, *de*, *desde*, *en*, *entre*, *hacia*, *hasta*, *para*, *por*, *sin*, *sobre*, *tras*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durante*,

excepto/salvo, mediante, según, versus 등은 그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cabe, so, vía*는 기능적으로 위축되어 소멸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각각의 요소들의 문법화 과정에는 의미소실, 탈범주화, 형태소실, 기능확대 등 일반적인 문법화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고 다른 언어에서 해당 문법소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스페인 언어학계에서 복합전치사는 전치사적 관용구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지칭되고 있으며 현대문법에 와서야 전치사의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형태와 명세는 어휘소와 전치사가 결합한 LP구조가 약 120개 정도이고, 양 전치사 사이에 명사구가 들어있는 P(D)NP구조가 약 420~460개 정도로, 후자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어휘항목이 직접적으로 명사 논항을 선택하기 어려운 범주적 특징상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문법화 과정에서는 의미지속성 및 의미소실, 탈범주화, 형태소실, 기능확대, 은유와 환유, 유추, 재분석, 층위화, 전문화 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스페인어 전치사의 발달과정이 문법화 원리들과 잘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일전치사에서 복합전치사로 다시 단일전치사로 진행되는 순환은 유추나 차용 등을 통한 비점진적 형태의 유입도 허용하기 때문에 형태의 축소와 재건이 되풀이 되는 전치사 순환 체계에서 어느 특정한 단계가 고정된 시작점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이는 문법화를 직선 연속선 위에 놓여 있는 언어형태들의 변화로 보지 않고 나선형의 원을 따라 순환하는 변화로 파악한 von der Gabelentz(1904[1891])와 같은 초기 문법화론 학자들의 주장과도 잘 부합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범언어적 함의, 유형론적인 함의, 문법화 이론적 함의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스페인어 전치사의 문법화는 다른 언어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과 잘 부합한다. 즉 전치사가 담당하는 개념 영역이 다른 언어의 부치사가 담당하는 개념 영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에 투영된 인간의 인지적 작용이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사용 맥락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또한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단일전

치사와 복합전치사가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도 범언어적 양상과 잘 부합한다.

또한 유형론적 측면에서 보면, SVO어순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핵전치언어(head-initial language)인 스페인어가 부치사 중 전치사 체계를 갖고 있음은 유형론적 예상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복합전치사가 형태통사적 단순화 과정을 거쳐 발달된 단일전치사와 공존하며, 복합전치사의 초기형태가 주로 P(D)NP의 구조를 가지는 것 또한 전치사 체계를 갖고 있는 언어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문법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본 논의에서 보인 바와 같이 문법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원리들, 즉 탈범주화, 형태소실, 의미소실, 기능확대 등이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법화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다양한 변화현상들, 즉 재분석, 층위화, 전문화 등도 잘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특정한 문법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법화 과정에 세밀하게 분석해 나가는 미시적 방법이 아닌, 단순전치사와 복합전치사 전체를 아우르는 전치사 체계 전체의 대략적인 통시적 발달과정을 살피고자 한 거시적 연구이다. 따라서 개별항목의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별 연구는 추후 문법화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 (2016) 『언어학사강의』 박이정.
- 김경희 (2018a) 스페인어 불변화사 como의 문법화 과정 연구. 『언어과학연구』 84: 47-73.
- 김경희 (2018b) 스페인어 전치사 *hacia*와 *de cara a*의 문법화 과정 대조분석. 『한국스페인어문학』 88: 37-63.
- 이성하 (2016[1998]) 『문법화의 이해(개정판)』 한국문화사.
- 한동일 (2014) 『카르페 라틴어(종합편)』 문예림.
- Alarcos Llorach, Emilio (1994)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Calpe.
- Bello, Andrés (184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In Ramón Trujillo (1981) (ed.), Litografía A. Romero, S. A.
- Bybee, Joan L.,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bezas, Emilio (2015) *La Preposición I, Cuaderno de Lengua Española*. Arco/Libros-La Muralla, S. L.
- Codita, Viorica (2016) *La Conformación y el Uso de las Locuciones Prepositivas en Castellano Medieval*. Iberoamericana.
- Corominas, Joan and Pascual, José (1981) *Diccionario Crítico Etimológico Castellano e Hispánico*. Gredos.
- Cifuentes, José Luis (2003) *Locuciones Prepositivas. Sobre la Gramaticalización Preposicional en Español*.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 Elvira, Javier (2009) Mal que le pese, pese a que y otros ‘pesares’: Gramaticalización y lexicalización en la lengua medieval. *Fronteras de un Diccionario: las Palabras en Movimiento*. 273-294. Cilengua.

- Gabelentz, Gerog von der (1901[1891]) *Die Sprachwissenschaft: Ihre Aufgaben, Methoden und bisherigen Ergebnisse* (2nd edition). Weigel Nachfolger.
- García-Page, Mario (2008) *Introducción a la Fraseología Española*. Anthropos Editorial.
- Givó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Givón, Talmy (2009) *The Genesis of Syntactic Complexity*. John Benjamins.
-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ernd and Tania Kutev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ne, Bernd and Mechthild Reh (1984) *Grammaticalization and Reanalysis in African Languages*. Helmut Buske.
- Heine, Bernd and Thomas Stolz (2008) Grammaticalization as a Creative Process. *STUF* 61(4): 326-357.
- Hopper, Paul J. (1987) Emergent Grammar.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3: 139-157.
- Hopper, Paul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Elizabeth C. and Heine, Bernd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17-35.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 Traugott (2003[1993]) *Grammaticaliza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égr, Aleš (1997) English Complex Prepositions of the Prepositional Phrase Type. *Acta Universitatis Carolinae - Philologica* 5, *Prague Studies in English XXII*: 51-78.
- Koike, Kazumi (1997) Valores Funcionales de las Locuciones Prepositivas en Español. *Onomazein* 2: 151-179.

- Kuryłowicz, Jerzy (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Eugenio Coseriu (ed.), *Esquisses Linguistiques II*. 38-54. Fink.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Press.
- Lehmann, Christian (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A Programmatic Sketch* 1. Universität zu Köln, Arbeiten des Kölner Universalien-Projekts 49.
- Meillet, Antoine (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26.6. In A. Meillet (1948)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1: 130-148. Edouard Champion.
- Nebrija, Antonio (149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In Antonio Quilis (1989) (ed.). Editorial Centro de Estudios Ramón Areces.
- Portilla, Mario (2011) El Origen de las Preposiciones en Español. *Filología y Lingüística* 37(1): 229-244.
- Real Academia Española (200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Santillana Ediciones Generales, S. L.
- Real Academia Española (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Libros, S. L. U.
- Real Academia Española (2010)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Libros, S. L. U.
- Rohdenburg, Gunther (1996) Cognitive Complexity and Increased Grammatical Explicitness in English. *Cognitive Linguistics* 7(2): 149-182.
- Romero, Carlos and Alfredo González (2011) *Gramática del Español Lengua Extranjera: Normas Recursos para la Comunicación*. Edelsa.
- Slager, Emile (2010) *Las Preposiciones en Español*. Editorial

Castalia, S. A.

Tomasello, Michael (1999) *The Cultural Origins of Human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Torres, Rena and James Walker (2011) Chapter 18, Collocations in Grammaticalization and Variation. In Narrog, Heiko and Heine, Bernd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225-238. Oxford University Press.

Traugott, Elizabeth C. (1996) Semantic Change: an Overview. *Glot* 92(10): 3-7.

Ueda, Hiroto (1990) Frases Prepositivas del Español, *Revista de la Facultad de Ciencias Humanísticas de la Universidad de Tokyo* 22: 9-33.

〈인터넷 자료〉

Google Ngram Viewer - <https://books.google.com/ngrams>

(검색일: 2018년 8월 1일)

Real Academia Española. Corpus Diacrónico del Español - <http://corpus.rae.es/cordenet.html>

(검색일: 2018년 8월 1일)

김경희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moaikim@hufs.ac.kr

이성하

[0245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ELLT학과

E-mail: srhee@hufs.ac.kr

논문접수: 2018년 8월 31일

수정완료: 2018년 10월 12일

게재확정: 2018년 10월 19일